

“독자 손까지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

윈스톱 출판 물류시스템 갖춘 파주출판물류(주)를 찾아서



· 파주시 교하면에 자리한 파주출판물류(주)의 전산 배본 시스템(위).
· 도난방지가 설치된 창고, 평당 3천부를 보관할 수 있다(아래).

시설 운용에 따른 수익으로 운영된다. 한편, 사업장을 이전한 ‘날개’의 기존 사업은 그대로 유지한다.

물류센터는 윈스톱 물류시스템을 추구한다. 그동안 ‘날개’가 축적한 운송물류와 창고물류 노하우를 기반으로, 출판사의 주문서 입수부터 분류·포장·운송까지 책임지는 시스템을 운용한다는 것. 이를테면 회원사가 통신으로 주문서를 보내면, 전산실에서 이를 취합해 배본 라인에 설치된 1·2·3팀의 단말기에 전송한다. 주문서를 받은 실무자는 제목이 아닌 번호 형태로 주문처별 도서를 분류해 컨베이어 벨트에 올려 놓는다. 분류된 도서는 30권이

넘을 경우 래핑기가 자동으로 포장하고, 소량은 수작업으로 포장한다. 포장된 도서는 주문처가 기입된 라벨을 부착해 다시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 운송장으로 이송한다. 낙원사는 이를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은 오전에, 지방은 오후에 배송한다.

현재 물류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출판사는 물류운송(배본대행)을 위탁한 180곳과 창고를 이용하는 130곳 등이다. 매월 보관료는 권당 6원70전, 운송비는 80원이다. 수해 및 도난방지 장치가 설치된 창고에 평당 3천부를 보관할 수 있다.

물류센터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도서는 6백50만권. 물류센터의 월별 수입은 도서 보관료 4천3백만원과 ‘날개’의 창고료 4천만원 정도. 투자비용 70억원을 감안하면 그리 많은 이익은 아니지만, 경영이 위축될 정도는 아니다. 조대표는 “현재 단순 계산을 해도 이익을 낸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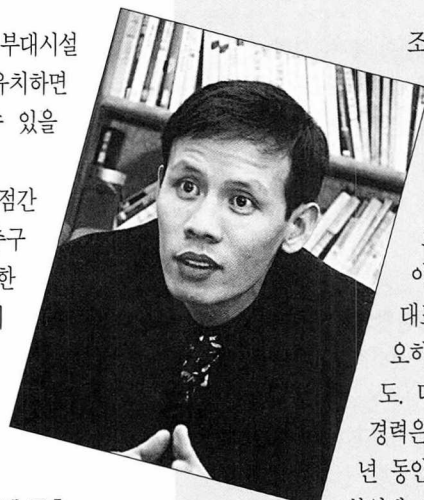
국내 최대 규모의 출판물류전문업체 파주출판물류주식회사(대표 조노현, 이하 물류센터)가 구랍 12월 16일 파주시 교하면에 대지 5,475평, 건평 2,800평 규모로 설립됐다. 도서 1천만권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대단위 물류 공동화 사업장 물류센터의 출현에 출판계 이목이 쏠리고 있다.

도서유통 ‘날개’와 컨소시엄 구성

물류센터는 도서유통업체 날개와 고려문화사·김영사·박우사·사계절·서지원·플빛·홍익미디어 등 6개 출판사가 출자한 13억원, 중소기업진흥공단이 협동화 자금으로 승인한 47억원, 그리고 기타 자금 등 총 70억원을 투입해 설립됐다. ‘날개’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설립한 물류센터는 ‘날개’에 창고를 대여한 수익과 인쇄업·지류업 등 부대

정보서비스 실현의 꿈

파주출판물류(주) 조노현 대표



으로 좀더 많은 출판사와 부대시설에 인쇄업·지류업 등을 유치하면 조만간 기대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물류센터는 출판사와 서점간의 중앙물류센터 역할도 추구한다. 물류사업으로 축적한 데이터베이스를 회원사에 제공해 다양한 기획 도서가 출간될 수 있도록 이끌 방침이다.

목표는 출판 종합 물류시스템 구축

과학적 출판통계 산출을 위해 ISBN을 적극 활용한 하드웨어를 구축했다. 현재 출판계가 활용하는 10진 분류법으로는 1백가지 항목 정도밖에 분류할 수 없는 단점을 보완해 1천항목까지 확대 분류할 수 있도록 했다. ISBN의 확대 적용으로 도서별·분야별·지역별·서점별 출판 흐름을 정확히 파악한다는 것. 조대표는 “신뢰할 수 있는 ISBN시스템을 회원사에 제공하고, 고유 코드가 없는 서점도 적용하도록 유도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ISBN을 정착시키고, 이를 통해 전산화를 출판계 전체로 확장해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물류센터의 ISBN시스템이 완벽한 것은 아니다. 제작단계에서 물류조달까지 윈스톱으로 이루어질 때, ISBN을 활용해 얻은 정보를 폭넓게 적용할 수 있게 된다.

물류센터는 반품 및 재생 서비스 시설을 갖췄다. 회원사에 사무공간을 제공하고 기숙사, 출판인 재교육을 위한 교육시설, 부대 수익사업으로 도서전시판매장도 운영한다. 책의 역사를 보여주는 전시관을 설치해 파주 지역 학생 및 일반인을 위해 개방한다. 여건이 되면 양서출판을 위한 금융지원사업도 펼칠 예정이다.

물류센터의 목표는 ‘원고만으로 책을 만들어 독자 손에 전달하는 출판 종합 물류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한가지 의욕을 더하면, 출판물류 운수사업 면허를 획득한 전문 운송회사를 설립하는 것이다. 의욕적으로 출발한 물류센터가 침체된 출판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듯싶다. — 오완진 기자

조노현 대표(37)는 출판계에 그리 알려진 인물은 아니다. 성격이 차분하고 앞으로 나서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까닭에 대표직을 맡은 것이 오히려 의아스러울 정도. 더욱 그의 출판계 경력은 송인서적에서 2년 동안 내근한 것과 배본업체 ‘날개’를 6년 동안 꾸려온 것이 전부일 만큼 짧은 편이다. 하지만 그는 누구보다 일에 대한 집념이 강하다. 거의 맨손으로 물류센터를 설립한 것도 그의 당찬 추진력 때문이다. 물류의 맥을 정확히 진단하는 능력과 성실한 자세 또한 장점이다. 새로운 출발선에 선 그는 “첨단 출판 물류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 만큼 출판계에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물류센터를 운용할 하드웨어 구축을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첨단 물류시스템을 갖춘 지금 6개월 이내에 모든 시스템이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회원사는 도서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빠르고 정확한 배본을 보장받을 것이다. 또한 출판 정보를 제공받는 등 최상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한다.

물류센터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동안 그는 또다른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꿈은 출판 물류를 전문적으로 운송할 수 있는 운송체계를 갖추는 것. “도서가 일반상품과 함께 취급당하는 것이 안타깝다. 출판계를 위해서도 전문 운송체계를 갖추는 것은 시급한 과제다.”

첨단 물류시스템 구축을 위해 한길을 달려온 그는 출판계를 향해 “출판사는 책을 만들고, 서점은 책을 팔고, 유통회사는 유통에 주력해야 한다. 중복투자 및 과당경쟁을 지양하고 전문화를 이룰 때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한다. <오완진>